

## 종이팩 분리 배출 수거 및 재활용품 판매 부진 미흡 케이블 TV 등 홍보 시작



안 문 회

(사)한국종이팩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지난 2003년 3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사)종이팩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종이팩조합)을 인가함에 따라 국내 종이팩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종이팩재활용 사업은 지난 1992년 10월 환경부 주관아래 우유팩재활용협의회가 발족(환경부주관)된 이래 2000년 종이팩재활용협의회 설립을 거쳐 올해 1월 현재의 조합으로 창립됐으며 3월 말 환경부

인가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내 종이팩 재활용 사업 단체로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안문회 초대 이사장을 만나 종이팩 재활용의 동향과 함께 종이팩재활용 사업의 현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지금까지 양질의 펄프를 사용해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이팩이 회수·재활용 되는 것보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져 매립되든가, 소각처리되던 것이 우리네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EPR 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갈되어 가는 산림자원의 보전에 기여하고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팩 재활용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마인드로 국민 모두가 종이팩 분리 배출에 힘써야 합니다.”

서울대 농화학과 출신의 안문희 이사장은 (주)정식품과 남양유업(주) 등의 유가공업계에서의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종이팩재활용의 무생산자 35개사, 종이팩제조사 6개사, 수집운반재활용사 5개사의 종이팩조합원사 융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종이팩조합은 ▲ 종이팩 수집, 재활용 및 재생제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각종 조사 및 지원 ▲ 종이팩 성형사업자와 공동으로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추진 ▲ 종이팩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등의 사업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종이팩 생산 및 사용량에 따른 재활용 비용적정 배분과 전문수집업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재활용을 위한 관계를 모색하면서 재활용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안문희 이사장은 현재 종이팩 재활용 사업에 대해 분리배출 및 수거의 미흡을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꼽았다. 안 이사장은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가 나서 국민들이 일반 종이와 종이팩을 구분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 팸플릿 등을 배포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종이팩 재활용 홍보를 위해 현재 종이팩 조합에서도 공중파 매체의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종이팩 분리배출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시내 미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110천매의 분리수집 마대를 제작, 현재 2개 구청 3~4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종이팩 분리·수거의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87%의 천연 펄프와 13% 가량의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이팩 재질은 천연펄트를 이용,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다.

안문희 이사장은 현재 재활용품(화장지)의 판매부진을 토로하면서 폐종이팩 세척시설을 설치해 질 좋은 원료를 공급하여 화장지의 생산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및 산하기관, 투자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재활용품 화장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문희 이사장은 앞으로 서울 우유조합 등 미가입 업체를 모두 가입시켜 종이팩조합이 국내 종이팩 재활용 업무를 책임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조합원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사간의 신뢰구축 및 유대강화를 바탕으로 조합원사 공동이익의 증진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종이팩 조합이 기틀을 마련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 관계기관, 단체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 종이팩 재활용의 사업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냐고 밝히는 안문희 이사장. 국내 종이팩재활용 사업을 이끌어갈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